

스마트폰에 빼앗긴 감성 ... '문학 청년들'이 사라진다

광주·전남 '대학 문학상' 존폐 위기

대학 도서관에서 책을 꺼내 읽는 학생들 찾아보기 쉽지 않다. 책을 읽는 것보다 스마트폰 터치가 더 익숙한 게 젊은 대학생들의 현실이다. 축약어로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걸 더 선호하는 젊은이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 때문에 문학도들이 찾는 대학 문학상 인기도 시들해지고 있다. 단장, 문학 청년들의 등용문 역할

을 했던 지역 대학 문학상은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응모자들은 끊임 없이 줄고 관심이 덜해진 탓에 작품 수준도 떨어지는 악순환만 계속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이 본격화 되기 이전 인터넷 물결 탓에 순천대는 지난 2007년 23회를 끝으로 '학술·문학상'을 폐지했다. 문예창작, 국어국문학 과 전공자들의 경우 '내기만 해도' 상을 받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응모자가 줄어든 게 표면적 이유다. 조선

대학생 책 안 읽는 문화 확산
해마다 응모 줄고 수준 하락
목포대는 참여 늘어 '주목'

대 학생·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대 문화상'도 응모자 수가 최근 3년간 평균 36명에 불과하다. 전남대의 경우 올해 후보자가 주관하는 '문예작품 현상공모'는 아예 수필 부문을 모집하지 않았다. 응모자, 작품 수준이 매년 떨어지면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다. 이 때문인지 전남대는 문예작품 현상공모 응모자 수

■ 광주·전남 대학 문학상의 '위기'

전남대	'문예작품현상공모' 중 수필 부문 폐지 작품 수준 해마다 떨어져 관심 없애
조선대	'조대 문화상' 응모자 수 평균 30여명
순천대	2007년 23회를 끝으로 '학술·문학상' 폐지
목포대	응모자 2010년 50명에서 2012년 75명으로 늘어 총장상·상금 인상 영향-문학동아리 활발

를 공개하지 않았다. 임환모 국어국문학 교수는 지난해 수필 부문 심사 위원으로 참여한 뒤 심사평을 통해 "수필부문 응모자가

단 3명뿐이라는 데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수필다운 작품이 한 편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분위기도 감

지된다. 전남대의 경우 상금 액수를 늘려서라도 유지하겠다는 입장. 학술·시나리오 등 공모 부문에 변화를 두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목포대는 이미 학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시행 중이다. 총장상을 수여하고 상금을 높였으며 교내 문학 동아리 활성화에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목포대 '학술 문학상 현상공모'의 경우 응모자 수가 ▲2010년 50명 ▲2011년 63명 ▲2012년 75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4원침 (8901) 김장두



친환경 인증 비리 장성부군수 구속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활동 단속반(반장 김한수)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사업과 관련된 비리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및 업무상 배임)로 박모(59) 장성군 부군수를 8일 구속했다. 박 부군수는 친환경 인증 업체 및 농가 지정과 관련,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하도록 해 특정 업체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l@kwangju.co.kr



뷰티아리랑 '조선의 여인들' 8일 광주시 서구문화센터 2층 강당에서 열린 '제4회 서구 뷰티아리랑 한마당'에서 (사)대한미용사회 광주서구지회 명정희 부회장과 10여명의 회원들이 '시간여행속으로-조선의 여인들'이란 주제로 작품을 시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화순탄광 지하 400m 갱도 '즉석 범정'

서울중앙지법 판사들 범복대신 광부복 입고 탄광이 농사 망쳤나 살펴

8일 오전 화순군광업소 광산에서 3명의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찾아가는 범정'을 열었다. 화순 광업소의 탄광 개발로 화순군 동면 복암리 일대 농지 84필지가 황폐해졌으며 농지 소유주 50여명이 광업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서류로만 피해 여부를 가늠하지 못했던 재판부는 원고 측의 주장대로 탄광 개발로 지표수가 고갈돼 농지가 황폐화됐는지 검증하기 위해 직접 현장에 찾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 장준현 부장판사를 중심으로 좌우에 배석한 판사들은 지하 400m 갱도 안에서 원고와 피고 측의 주장

을 꼼꼼히 들었다. 현장 검증의 핵심은 광업소 측이 광산개발로 지표수를 고갈시켰는지 여부다. 갱도 안까지 들어간 이들 판사들은 저수조와 배수펌프 시설 규모, 배수관 크기 등을 꼼꼼히 따져 광업소 측의 광산개발로 지표수가 인위적으로 고갈됐는지를 검증해 나갔다. 장 부장판사 등은 범복이 아닌 광부 작업복으로 모두 갈아입었지만 갱도 안에서 즉석 범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피고와 원고 변호사들의 말싸움이 오가자 이를 제지하고 꼼꼼하게 광산 관계자의 설명을 녹음기에 녹음했다. 7일 오전에는 화순광업소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했고, 오후에는 원고 측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토지 84필지 등을 현장 검증하기도 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광주 법인택시회사 76곳 최저임금법 위반"

소정근로시간 줄여 편법으로 범망 피해 대책위, 실태조사 나서 ... 고소 방침

광주지역 법인택시회사들이 최저 임금 관련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할 처지에 놓였다. 광주시의회 강은미 의원은 8일 "광주지역 전체 법인택시회사 76곳에서 제출받은 택시운전기사 최저임금(시간당 4860원)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최저임금 관련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고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인택시회사에서 제

시한 소정근로시간(임금지급을 위해 노사간 합의한 근로시간) 자료를 보면 택시기사들이 하루에 6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1년 실시한 택시근로자조건 실태 조사 자료를 보면 시간당 운송수입금이 1만원으로 사납금이 8만3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6시간 일해선 사납금 채우기도 힘들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특히 "법인택시회사들이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줄여 편법으로 최저임금법을 피해가고 있다"며 "(법인택시회사들이) 하루 10시간~12시간씩 일하는 택시노동자들의 임금 지급 노동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루 6시간까지만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산에선 택시노동자들이 법인택시회사를 상대로 지급까지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한 집단소송에 들어간 상태"라며 "4000여 명의 택시노동자들의 생계 보장 등을 위해 이들 회사를 대상으로 체불임금에 대

한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지역 택시운전사와 노동단체·변호사·노무사 등은 지난 6월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준수와 택시노동자 법정임금 확보를 위한 광주지역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벌였다. 대책위는 10일 오전 11시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인택시 회사들의 최저임금 관련법과 전액관리제, 부가세 경감세액 지침 위반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발표한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불법조업 단속 해경 중상 입힌 중국 선원 14명 영장

해양경찰이 불법으로 조업하다 단속에 나선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중국 선원 1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국 유자망 어선들의 금어기가 해제된 이후 이달 들어서만 흉기를 휘둘러다 구속된 중국 선원들이 26명에 이르는 등 서남해안 '황금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의 저항이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은 8일 무허가 불법 조업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관에게 흉기를 던져 중상을 입힌<광주일보 8일

가을 10대를 병원에서 금고 출처 ○...가을 후 생 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심야시간에 병원 금고에서 현금을 훔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자 토크로 들고나온 10대 청소년이 경찰서행. ○...8일 남부경찰에 따르면 양모(16)군은 지난 1일 새벽3시40분경 광주시 남구 월산동 H병원 원무과에서 현금 30만원이 든 소형금고를 훔쳤다는 것. ○...경찰에서 양군은 "현금만 훔치려고 했으나 금고문이 잠겨 있고 크기도 작아 나중에 부셔서 돈을 빼내려고 그대로 들고 나왔다"고 진술.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신협대출

한도는 캐피탈만큼 높게 ↑
금리는 은행만큼 낮게 ↓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내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낮은 금리로 원하는 만큼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원광신협
| 공동본점 | 227-4474
| 금호지점 | 383-4474
| 풍암지점 | 653-4474

사|원|모|집

사계절 푸르른 양잔다. 친환경 나비의 고장 함평다이너스티CC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1. 모집부문**
- 웨이츄레스(신입 및 주임급) 0명
- 2. 자격요건**
- 고졸이상 학력 취득자
- 경력자 우대
- 3. 급 여**
- 연봉제 1,900만원이상(퇴직금 별도)
- 경력자 면접 후 결정(이력서 우측상단에 희망연봉 기재)
- 4. 복리후생**
4대보험 가입, 숙식제공, 각종 수당 지급, 경조사지원, 우수사원포상, 단체상해보험가입, 교통비 지급 등
- 5.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6. 전형방법**
- 우편 및 이메일, 방문 접수
- 접수기간: 총원사까지(총원서 조기마감)
- 서류접수 후 면접일자 개별통보
- 7. 접수처**
- 주 소: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동 곽창리 산1-6
- 담 당: 경영지원팀 오승태 부팀장
- 전 화: 061-320-7717
- 팩 스: 061-320-7710
- 이메일: seungtae01@naver.com

임팩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정마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